



요즘 거지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차림으로 구걸을 하는 거지와 단정하게 차려입은 거지의 수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걸이라기보다는 사기에 가까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크라쿠프는 주로 학생복장을 하고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Ochrona dworca’ 라고 불리는 순찰 경찰들이 있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눈감아 줍니다. 거지가 하루에 얼마나 버는 지 경찰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경험담을 말했는데 거지와 한 번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지가 2 시간 안에 200주워티(한화 약 8만원)를 번다고 했는데 35분 만에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에는 약 3만 명의 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10년 조사) 제일 많은 곳은 바르샤바 주도와 실롱스크(체코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 지역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며 여자들은 8분의 1 정도입니다. 이들을 위한 쉼터가 625개(약 23,000명 수용)나 있고 정부에서는 거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지들은 현재의 삶에 불만이 없으며 그런 귀찮은 일을 왜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유럽에서 술이 가장 저렴하여 이것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제 거지들에게 음식이 필요한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보다 더 많은 수입으로 이들은 게으른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거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현상은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모든 나라의 거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지가 진화하고 있다” 조금 쓴웃음이 나는 이야기 인가요? 고국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하는 것을 거부하면 삶은 자신에 의해 사육된다 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 가정 사역 세미나 - 한국 문화강좌와 다도교실

실롱스크 지역은 폴란드의 남서쪽에 위치해 울창한 숲과 좋은 물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조금 특이하여 가부장적인 요소가 가장 심한 곳 입니다. 다른 폴란드 지역은 여성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이곳은 마치 옛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남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터에서 힘들었던 가족들이 부부, 또는 가정단위로 힘을 가지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뚜렷하게 정해진 강의는 없지만 서로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어 대화를 나누며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모두들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체계와 가정교육, 그리고 교회학교등을 소개하였고 다도교실을 통해 한국인의 차 한 잔에 담긴 여유를 이야기 했습니다.





## 폴란드 재소자 사역 - 헨드릭 비에헤치 목사.

◎ 폴란드 공업도시인 카토비체 시의 인근 30Km 반경의 소도시(비툼, 자브제, 티히, 소스노비체, 미스워비체)를 포함한 인구는 약 450만 명 정도 됩니다. 재소자는 약 1,500여 명 정도가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헨드릭 비에헤치 목사가 재소자 사역하는 카토비체 교도소(약 300명 수감)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에게 겨울 방한복과 신발, 양말, 장갑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재소자들에게 의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여름에 수감된 형편이 넉넉히 못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재소자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의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헌옷이나 포장되지 않은 옷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직접 공장에서 주문하여 마련한 옷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에는 자세히 소개를 하지 못하지만, 다양하게 남성과 여성수감자들을 위하여 양말, 목도리, 겹옷과 속옷 등 헨드릭 목사 부부가 세심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헨드릭 목사는 1주일에 한 차례씩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 <중앙유럽과 폴란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제목>

- 1) 폴란드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건과 영성을 위하여,
- 2) 한폴 아카데미를 통한 체코,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를 비롯하여 중앙유럽 교회의 성장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 3) 크라쿠프 이삭교회의 제 2기 모임을 위하여.
- 4) 중앙유럽 명성 문화선교관의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 5) 헨드릭 비에헤치 목사와 협력하는 폴란드 재소자 사역을 위하여
- 6) 김상철, 서정희 선교사가 가톨릭의 권세에 위축되지 않고 강한 영성을 갖도록.



-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김상철, 서정희 드립니다.

